

사회

광주세광학교 시각장애학생들의 월드컵

마음의 눈으로 한마음 응원 "대한민국 8강 꼭 갈 겁니다"

"남들처럼 선명하게 중계화면을 볼 수 없지만, 한국 축구의 8강 진출 순간은 반드시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 보이는 TV 화면과 중계방송 소리를 통해 한국의 16강 진출을 자축했다.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문자를 소리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시각 장애인들에게 화면의 내용과 자신이 입력한 키보드 정보 등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친구들 중계 흥미진진

김재철(16)군은 "그동안 축구 중계는 방송사의 해설에만 의존해왔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을 눈앞에서 보는 것 처럼 흥미진진했다"고 말했다.

'스크린 리더'로 관전

각장애인용 프로그램인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가 설치된 컴퓨터



시각장애특수학교인 광주세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5일 오후 학교 강당에 모여 '대~한민국'을 외치며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8강 진출을 기원하고 있다.

를 통해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거나 경기내용을 다시 찾아 보기도 한다. 스크린 리더는 모니터에 있는 문자가 소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월드컵 관전 도우미다.

을 이룬 만큼 8강에도 반드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우루과이전에서는 2대 1로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점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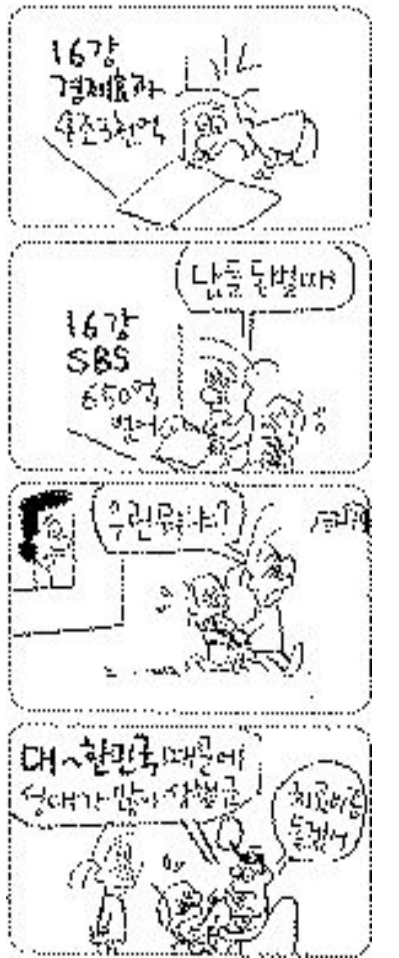
길거리 응원전 가고 싶어

또 이번 우루과이전에서는 8강 진출의 순간을 길거리 응원단들과 함께 지켜보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다. 이날 만큼은 길거리의 수많은 '붉은 악마'들과 함께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겠다는 마음 때문이다.

힘 때문에 길거리 응원전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우루과이전은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보고 싶다"며 친구들과 함께 TV를 통해 경기를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경기장에서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광주세광학교 김정욱 교장은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한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고 있다"며 "모두들 한국이 8강에 진출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했다.

나원침 (8057) 김중두



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 사형 선고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괴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 유기 정황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 등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를 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재범우려가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극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질병관리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나 지역내 협력병원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실험실 감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감염성 질환 실험실 감시사업은 4대 주요 감염성질환인 세균성질염 등 급성설사질환·인플루엔자 등 급성호흡기질환·수족구병 등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유행성각막결막염 등 안과질환에 대해 12개 협력병원을 찾은 환자의 가검물을 매주 수집해 원인병원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행 질환의 발생 추이를 연중 감시하는 사업이다.

순찰차 받고 '뽕소니' 권상우 입건

○서울강남경찰은 25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과 경찰차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권상우(3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2일 새벽 3시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다 제네시스 승용차와 경찰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인근 주차장의 나무를 들이받은 뒤 종적을 감췄다는 것.

○권씨는 사고 발생 이틀 만인 14일 오후 2시30분에야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오는데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겁이 났다"며 선처를 호소.

광주시교육청 118명 승진 인사

기획관리국장에 최화룡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7월1일자로 일반직 지방부이사관 2명과 지방서기관 4명(행정·기술 각각 2명), 기술사무원 1명 등 118명에 대한 승진인사 발령을 25일 단행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로 예정된 교육청 직제개편과 광주시교육위원회의 8월 말 폐지를 감안해 정년퇴직과 공로연수로 공석이 된 빈자리를 채우는 수준으로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

이번 인사에서 최화룡 광주시교육청 위원회 의사국장이 광주시교육청기

획관리국장, 백종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이 금호평생교육관관장으로 자리를 옮겨 4급 서기관에서 3급 지방부이사관으로 각각 승진했다. 6급 이하 승진자의 전보인사는 9월로 예정된 직제개편 시에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

인사 명단

◇4급(서기관) 승진

▲총무과 조재연 ▲총무과 김희철 ▲교육시설과장 최지상 ▲교육시설감리단장 이우기

◇5급(사무관) 승진

▲학교시설담당 안민 ▲4급 및 5급 직무대리 ▲의사국장 직무대리 이경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직무대리 장진 ▲5급 전보 ▲시설감리단 감리1과장 김근수

◇교육행정직 6급 승진

▲전해준 교육정책과 ▲박영태 평생교육체육과 ▲정정래 재정복지과 ▲기운 서부교육청 교육장 지정기관

◇시설직 6급 승진

▲김정소 교육시설과 ▲박광성 ▲교육행정직 7급 승진 ▲박보영 전남여고 ▲김대환 교육정책과 ▲김성열 교육시설과 ▲손혜경 첨단과 ▲한기준 유아교육진흥원 ▲오영지 교육연수원 ▲설지현 동부교육청 교육장 지정기관 ▲강길봉 ▲김지영 ▲이진아 ▲임인택 서부교육청 교육장 지정기관 ▲김두생

▲남준 ▲한국남 ▲양훈열 ▲이윤지 ▲송지희 ▲김국현 ▲서민국 ▲이선화 ▲김선호 ▲정수환 ▲이관영 ▲이종식 ▲김도형 ▲유경화 ▲류정미 ▲박자영 ▲전명순 ▲오현정

◇시설직 7급 승진

▲김민 교육시설과 ▲기능직 7급 승진 ▲최현숙 총무과 ▲조기태 행정관리과 ▲서병호 동부교육청 교육장 지정기관 ▲안기배 총무과 ▲김기완 운납고



25일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 6·25 60주년 행사

6·25전쟁 60주년을 맞은 25일 광주·전남에서는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열렸다.

광주에서는 이날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송기근 행정부시장과 모충호 31사단장, 장갑수 광주지방보훈청장, 보훈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6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60년 전 6·25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전용사 포상, 기념사, 헌시 낭송, 6·25의 노래,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이날 화순군 화순읍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이상

면 정부부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참전용사, 보훈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6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전용사 포상, 헌시 낭송,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겼다. 또 식전 행사로 마련된 6·25전쟁 영화 상영과 역사기록 사진 전시에도 보훈가족 등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이날 6·25 참전용사 전우회와 공군전우회 유공자 40여명을 부대로 초청해 참전용사들의 경험담을 들었다. 또 '나라사랑 사진전'과 '주먹밥 먹기' 행사 등을 통해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피자·치킨 포장지 유해물질 검출

일부 유명 피자·치킨 전문점에서 쓰는 포장지에서 피부와 눈에 자극을 주는 형광증백제 등의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피자·치킨전문점 239곳의 식품포장지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32곳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거나 증발잔류물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기준치를 넘은 포장지를 사용한 음식점은 피자, 파파이스, 맥도날드, 도미노피자, BBQ치킨 등이다. /연합뉴스

주말·휴일 장맛비 최고 200mm

월드컵 한국-우루과이의 16강전이 열리는 26일 광주·전남지역에 장맛비가 예상된다.

비는 28일까지 이어져 광주와 전남 대부분의 지역은 40~150mm, 전남 남해안은 60~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광주·전남지역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어 26일부터 28일까지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26일 전남 일부 지역(구례·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은 호우예비특보가, 여수시·완도군·흑산도·흥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으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먼바다에서 2.0~4.0m로 높게 일겠고, 서해남부전해상과 남해서부앞바다는 오전에 1.0~2.5m로 일다가 오후에 1.5~3.0m로 점차 높게 일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환측

▲이하림(前 광주시 동구청 경제과장)·유홍복씨 차남 정민군 박영삼·문숙희씨 장녀 선미양=26일(토) 상무지구 조선컨벤션 3층(컨벤션홀)

부름

▲이연순씨 별세 박석진·정단정애·정미·정경씨 모친상=발인 26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신정임씨 별세 손운진·영희·광희·병희·창희·동희·하지·진선씨 모친상=발인 26일(토)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윤경자씨 별세 정병운·재호·해연·혜진씨 모친상=발인 26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명옥씨 별세 대웅·태형·지영·미영씨 부친상=발인 26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송은자씨 별세 유경량(자영업)·영경씨 모친상 최승범(현대기아자동차 홍보실 차장)씨 빙모상 =발인 26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Advertisement for a funeral home (장례식장)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for a service on June 27th.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with icons for sun, clouds, and rain, and a table of temperatures for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Mokpo, and Jeonju.